

연중 제2주일(1월 19일)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 2,1-11)



카나의 혼인잔치

이 그림은, 결혼식 피로연 장면일지라도 이렇게 우아하면서 또 차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의 중앙에서 약간 치우친 곳에, 신부가 벽에 화려한 양탄자를 뒤로하고 앉아 있고, 식탁 위에는 각종 요리들이 즐비한데, 각각의 요리들이 세부까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식탁의 왼쪽 모서리와 왼쪽 편에는 성모님과 예수님이 위치해 있으며, 그 뒤로 보이는 대리석 기둥 뒤로는 중세풍의 마을 풍경이 펼쳐져 있다. 왼쪽 가장자리 부분에는 후원자와 그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그려져 있다. 포도주를 따르는, 혹은 포도주 담당자 뒤에 후원자의 부인인 듯한 여인이 있으며, 그녀는 허리에 묵주를 차고 있다.

작가 제라르 다비드 | 1500년경 작, 나무 위 유화, 100x128cm, 루브르 미술관, 파리.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오소서. 저희와 함께 머무르소서.
-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당신께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4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6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7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9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11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신앙생활 중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보다, 내 뜻에 더 집중하지는 않았습니까?

(요한 2,5 참조)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표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한 2,11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한 복음 사가가 혼인 잔치의 표징을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징으로 설정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신랑과 신부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하느님과의 혼인으로 비유했습니다. 혼인을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은 혼인 잔치라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파하게 될 위기에 처해진 혼인 잔치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계약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 즉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복음 사가는 혼인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해진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요한 복음 1장 이야기의 바로 뒤에 배치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위기가 해소됩니다.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거룩하게 봉헌하는 미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흘리신 피를 통해 이 잔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

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 당신의 몸과 피를 마련해 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미사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에서 기쁘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맞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요한 2장 11절]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교황님 1월 기도 지향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구성원들과 십자가의 길 바치기
- ② 모임 시 식사나 다과 비용을 모아 후원하기 (ACN[고통받는 교회 돕기], 국경 없는 의사회 등)

내 삶 속에서

- ① 저녁 기도와 함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바치기
- ② 전쟁 중 특히 더 고통받는 이들인 아이들을 위하여 묵주기도 20단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